

종합 NEWS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기사입력 2010.05.26 04:00:43

 트위터  미투데이  블로그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개관 준비에 들어갔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2010년 제12회 베니스비엔날레 국제 건축전에 한국관 커미셔너로 권문성 성균관대 건축학과 교수를 임명했다. 올해 한국관 주제는 'RE-PLACING'으로 압축성장 과정에서 드러난 역사도시 서울의 변화를 다룬다. 참여 작가는 신승수 디지오즈건축 대표, 이상구 경기대 건축학과 교수, 이충기 서울시립대 건축학부 교수, 조정구 구가도시건축 대표, 하태석 아이아크건축 대표 등이다. 베니스비엔날레는 세계 3대 비엔날레 중 하나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95년부터 한국관을 건립해 운영하고 있다.



[문희철 기자 reporter@mk.co.kr]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1557호(10.05.26일자) 기사입니다]